

말레이시아 여행

나는 2012년 4월 말레이시아를 여행한 적이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말레이시아도 처음 가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갔다.

우리는 부킷 빈땅에 있는 파른헤잇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부킷 빈땅은 비싼 쇼핑 센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식당이나 미용실도 비싸다. 하루는 동생과 부킷 빈땅의 한 미용실에 갔다. 그 미용실은 참 멋졌다.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었다. 미용실 아가씨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기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삼촌은 우리에게 브루나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삼촌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내 국적을 속였다.

"끼끼(꼬따 끼나발루) 사람이예요."

"나도 거기에서 산 적이 있어요. 끼끼 어디에서 살아요?"

나는 꼬따 끼나발루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다.

"그냥 거기 어디에~"

그런데 그 아가씨는 계속 말했다. 나는 계속 아무 대답도 못 했다. 머리를 다 감고 돈을 내려고 할 때도 그 아가씨는 계속 끼끼 이야기를 했다. 후회가 됐다. 조금 짜증도 났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했다.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짜증도 안 났을 것이다.

"안녕히 가세요~. 끼끼 사람~."

마지막까지 나는 끼끼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하디나 (12B1248)